

## 트레비스 어깨에 KIA 8월 운명 걸렸다



트레비스

### 주간 프로야구 전망대

#### '1.5군 KIA' 두산·SK 상대 힘겨운 원정길 이용규·나지완·김주형에 '위기 탈출' 희망

위기의 KIA 타이거즈가 험난한 원정길에 오른다. 두산(6위)과 SK(3위)를 상대로 원정 6연전이다. 지난주 홈 4패를 당하며 2위로 주저앉은 KIA는 올 시즌 두산에 7승3패, SK에는 6승4패를 거두며 상대전적에서는 앞서 있지만, 최근 부상과 체력저하로 전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다.

삼성에 시즌 첫 스윙을 당한 KIA는 김상현의 광대뼈 함몰 부상에 최희섭·로페즈가 각각 발가락 미세 골절과 옆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며 크게 구멍이 뚫렸다. 팬들마저 '1.5군'이라고 격정할 정도다.

'창과 방패'가 동시에 힘을 잃으면서 8월의 대야전을 준비했던 KIA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KIA의 가장 큰 고민은 선발 로테이션이다. 에이스 윤석민이 최고의 시즌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함께 원투편지를 구성했던 로페즈가 재활군이 됐고, 부진에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좌완 양현종도 살아날 기미가 보

이지 않고 있다.

2군에서 부활을 준비했던 양현종은 7월 마지막날 넥센을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다. 양현종의 등판의지가 강함에도 앞선 불펜피칭에서 합격점을 받은 만큼 조병현 감독이 예정보다 일찍 양현종을 마운드에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1회부터 불펜 두 개를 내준 양현종은 송지만에게 3점포를 허용하는 등 3이닝 4실점을 기록하고 조기 강판됐다. KIA는 이날 8명의 투수를 마운드에 쏟아부었지만 4-9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후반기를 2승4패로 시작했다.

2일 두산 이용찬과 맞대결을 벌이는 좌완 트레비스의 어깨에 KIA 마운드의 운명이 걸렸다. 트레비스는 7월 한 달 4경기에 등판해 27과3분의 10이닝을 책임지면서 2.31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세 차례 퀄리티스타트를 끊으며 후투 퍼레이드를 펼쳤지만 불펜 작전 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단 1승도 거두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8월 1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86	50	34	2	0.595	-	1패
2 KIA	93	54	39	0	0.581	0.5	1패
3 SK	81	45	36	0	0.556	3.5	1승
4 롯데	87	42	42	3	0.500	8.0	4승
5 LG	84	42	42	0	0.500	8.0	1승
6 두산	80	34	44	2	0.436	13.0	3패
7 한화	87	37	49	1	0.430	14.0	1패
8 넥센	80	31	49	0	0.387	17.0	1승

지 못했다.

계속된 불펜 난조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트레비스마저 페이스를 잃는다면 KIA의 2위 자리도 장담할 수 없다.

타석에서는 '85 트리오' 이용규·나지완·김주형의 어깨가 무겁다.

이용규가 꾸준함으로 토타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KIA에서도 손꼽히는 두 거포 나지완·김주형의 방망이가 들쭉날쭉이다.

특히 김주형은 최희섭의 공백을 채울 중임을 맡아 유망주 피리표를 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공·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차세대 거포들의 방망이가 위기의 8월을 맞은 KIA를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배야 U대회를 부탁해" 한국 양궁의 대들보 광주시청 기보배가 1일 울림 피크닉에서 열린 2011 선전 하계유니버시아드 결단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는 12~22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하계 U대회에 한국은 육상, 양궁 등 20개 종목 290명의 선수를 파견해 종합 6위를 노린다. /연합뉴스

## 윤석민 프로야구 7월 MVP

기자단 투표 만장일치

KIA 윤석민이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7월의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7월 5연승 행진을 내달린 윤석민이 기자단 투표에서 만장일치(22표)로 MVP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달 30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자신

의 첫 무사사구 완봉승을 장식한 윤석민은 7월 한 달 5경기에 선발 출전해 0.73의 방어율로 5전 전승을 거뒀다. 이중 3승은 완봉승(7월 8일 잠실 LG전 6회 강우포드 게임 완봉승 포함)이다.

윤석민은 7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다승(13승)·방어율(2.35)·탈삼진(126개)·승률(0.867)부른 1위를 달리고 있다.



MVP 상금은 500만원이다. 윤석민은 이중 15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모교인 인천창중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윤석민은 "야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다"며 "즐거면서 배우고, 서두르지 않고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면 꿈은 이뤄질 것이다"고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화순고 골드승 16강

고교야구 왕중왕전

화순고가 청룡기 겸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16강에 진출했다.

화순고는 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주고와의 대회 32강전에서 11-4, 8회 콜드게임승을 거두고 광주일고·진흥고에 이어 16강에 합류했다. 6전 전승으로 전라리그 1위로 왕중왕전에 출전한 화순고는 6타수 4안타 2타점의 맹타를 휘두른 최민재를 앞세워 장단 14안타를 몰아치며, 8회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화순고는 4일 오후 6시30분 덕수고·개성고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툰다.

한편 동성고는 경남고 마운드 공략에 실패하면서 7회 0-8 폭패를 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마라톤 지영준 부상에 발목

대구 세계육상 엔트리 탈락

한국 남자 마라톤의 간판 지영준(30·코오롱)이 부상에 발목이 잡혀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마라톤·경보 기술위원회는 1일 연맹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지영준과 아킬레스건에 통증이 있는 박주영(31·한국전력)을 마라톤 남자 대표 최종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세계대회에는 정진혁(최고기록 2시간19분28초), 김민(2시간13분11초), 황준현(2시간10분43초), 황준석(2시간16분22초), 이명승(2시간13분25초) 등 5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연합뉴스

## 여자골프 '청야니 시대'

브리티시오픈 역전 우승

한국선수 100승도 불발

청야니(대만)가 브리티시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250만 달러)에서 역전 우승했다.

여자프로골프 세계 랭킹 1위인 청야니는 1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의 커누스티 골프 링크스(파72·649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2위에 4타 앞선 청야니는 우승 상금 38만여 달러를 받았다.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한 것은 1998년과 1999년 켈피언 셰리 스타인 하워(미국) 이후 청야니가 12년 만이다. 또 역대 남녀프로골프 선수를 통틀어 가장 어린 나이(22세6개월8일)에 메이저 대회에서 5승을 기록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 선수로는 양희영(22·KB금융그룹)이 10언더파 278타로 단독 4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더라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100승을 채울 수 있었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달린 카롤리네 마손(독일)에 2타 뒤진 단독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청야니는 마손이 초반부터 스스로 무너진 덕에 힘들지 않고 역전에 성공했다. 청야니도 1번 홀(파4)에서 보기를 범해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했으나 3번과 6번 홀에서 버디를 낚아 1타를 줄인 반면 마손은 7번 홀(파4)까지 보기만 3개를 쏟아내며 선두를 청야니에 내줬다.

지난해 L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청야니는 올해도 상금, 평균타수,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사의 노젓기 드래곤 보트 레이스 참가자들이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제15회 롱비치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 500m 경주에서 힘차게 노를 젓고 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미국 내 30여개 팀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